

<문제 1>

제시문 (가),(나),(다)의 공통된 주제어는 '아름다움'이다. (가)의 화자는 문인화가들이 인위적으로 매화를 꺾는 모습을 비판하며 순리의 아름다움을 강조한다. 즉 자연물인 매화를 통해 온전함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긍정적으로 본다. (나)는 인공물인 무량수전을 통해 자연과 인위성의 조화에서 나온 아름다움을 설명한다. (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인위적으로 형성된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해 설명한다. 여성이 인위적인 행동을 하지만 그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 모순적인 상황에서 아름다움이 발현된다.

세 제시문 모두 아름다움의 본질을 설명하지만 아름다움에 포함된 인위성의 유무에 따라 (가)와 (나),(다)로 구분된다. (가)는 인위적으로 변형을 가한 매화는 아름답지 않다고 주장하며 순리를 따르는 인위성이 배제된 자연스러움 그 자체를 아름답다고 평가한다. 반면 (나)는 자연스러움과 인위성의 적절한 조화를 아름답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인위성을 긍정한다. (다)는 인위성이 극대화된 행동을 하지만 그것이 자연스럽게 보이는 모순적인 상태가 아름답다고 평가하며 인위성을 강조한다.

한편 (나)와 (다)는 인위성에 포함된 편안함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 (나)에 따르면 무량수전의 인위적인 아름다움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자연의 아름다움을 부각할 때 진정한 아름다움이 나타난다. 다시 말해 인위성은 순리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하다. 따라서 크고 작은 돌들은 인위적인 잔재주의 조화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도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순리에 따라 편안하게 놓여있다. 반면 (다)에 따르면 여성이 끊임없이 시선을 의식하며 인위적인 행동을 하지만 그것이 결코 티가 나지 않는 역설적인 상황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이다. 이는 무척이나 인위적이지만 그것이 자연스러워 보여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노력과 생각을 필요로 하므로 편안함과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다.

<문제 2>

제시문 (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겉보기에 다이아몬드 원석은 커다란 돌덩이에 지나지 않지만 다듬어진 물방울 다이아몬드는 아름답게 보인다. 이러한 심미적 관점에서 순리대로 존재하는 다이아몬드 원석에 인위적인 행위를 가하여 얻어지는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원석보다 더 아름답다. 이는 제시문 (가)의 내용과 반대된다. (가)의 '나'는 문인화가들이 매화에 가하는 인위적인 행동을 비판하며 온전함을 긍정적으로 본다. 따라서 이 시각에서 (가)는 순리만을 강조하고 변형된 모습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점에서 비판가능하다. 때로는 투박한 자연스러움보다 인위적임이 표면적으로 볼 때 더 아름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물방울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 원석보다 가치 있다. 다이아몬드 원석은 (가)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커다란 돌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물방울 다이아몬드는 고도의 기술로 가공된 희소성이 있는 보석 중 하나이다. 흔한 다이아몬드 원석보다 흔하지 않은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훨씬 가격이 비싸다는 점에서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더 가치 있다. 이는 (가)에서 꺾여진 매화를 비싸게 받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과 반대된다. (가)의 화자는 매화의 경제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가능하다.

자연과 인위의 결합이라는 복합적인 관점에서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 원석보다 더 아름답다. 다이아몬드 원석은 인공성이 가미되지 않은 자연 그 자체의 일면적인 모습을 보인다. 반면 물방울 다이아몬드는 물방울이라는 자연물을 본따서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자연물의 아름다움과 인위적인 아름다움이라는 복합적인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자연물만의 아름다움 뿐 아니라 인위의 아름다움까지 녹아있는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더 아름답다. 이러한 시각에서 (가)를 보면 문인화가들이 규정한 꺾여있는 매화는 자연적인 아름다움과 인위적인 아름다움이라는 두 가지 면을 포함한다. 하지만 (가)의 화자는 단순히 매화의 온전한 자연스러움만을 추구하는데 이는 자연의 아름다움이라는 한 가지 면만을 보는 것이므로 비판 가능하다.